생명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춥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노동자와
만 · 납 · 시 · 다

스물네 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님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안전한 나라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故김용균님은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를 기억하는 우리가 나섭시다.

△문재인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배상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관련법 처리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 등을 요구합니다.

연번	이름	주소(행정동까지)	한마디
1			
2			
3			
4			
5			

청년비정규직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